

##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일시 | 2011. 8. 12.(금) 14:00~17:00

장소 | 외교안보연구원 강당(1층)

주관 | 육아정책연구소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 일시: 2011. 8. 12.(금) 14:00~17:00

□ 장소: 외교안보연구원 강당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 및 인사말	<div>김관복(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div> <div>최성락(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div>
14:20~14:50	발표	<div>「5세 누리과정」 제정(안)</div> <div>조복희(육아정책연구소 소장)</div>
14:50~15:00	휴식	
15:00~16:00	패널 토의	<div>좌장: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div> <div>[토론자]</div> <div>김영옥(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div> <div>서영숙(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div> <div>이인혜(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div> <div>신경은(한송이유치원 원장)</div> <div>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div> <div>장미라(편일어린이집 학부모)</div> <div>[자유토론자]</div> <div>김명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div> <div>이정옥(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div>
16:00~16:10	휴식	
16:10~16:5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50	폐회	



# 차례

---

## 발 표 「5세 누리과정」 제정(안)

Ⅰ. 「5세 누리과정」 개요 및 추진 경과, 향후 추진일정 .....	3
Ⅱ.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구성 .....	7

## 토 론

김영옥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5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33
이인혜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	38
신경은 한송이유치원 원장 .....	42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	45
장미라 면일어린이집 학부모 .....	47

---



❧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개발 TF 위원 ❧

이 름	소 속
조복희(위원장)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임혜성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서기관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연구관
오경미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연구사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문미옥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미정	여주대학 보육과 교수
박영례	대전교육청 유아담당 장학관
박초아	울산보육정보센터장
문원자	부산 연산유치원 원장
오경숙	면일어린이집 원장
염명순	인천 꿈나라유치원 원장
이순희	파랑새어린이집 원장







## **발표. 「5세 누리과정」 제정(안)**

---

### **Ⅰ. 「5세 누리과정」 개요 및 추진 경과, 향후 추진일정**



# I. 「5세 누리과정」 개요 및 추진 경과, 향후 추진일정

## 1. 「5세 누리과정」 개요

정부는 지난 5월 2일 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을 발표하였다. 「5세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5세 누리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 가. 만 5세아를 위한 공통과정 도입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5세 누리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된다. 이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지원대상 만 5세아 전체로 확대

내년부터 모든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 다. 만 5세아 교육·보육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지금까지 만 5세아의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 2. 「5세 누리과정」 추진 경과

### 가. ‘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함께 적용할 ‘만5세 공통과정’이라는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4,076명이 참여하여 5,603건이 접수되었다.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학부모, 네이밍 전문가 등 심사위원들이 1, 2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5세 누리과정」이 ‘만5세 공통과정’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5세 누리과정」의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교육을 통해 만5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나.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5세 누리과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만5세 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전체로 확대하고,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 3. 「5세 누리과정」 향후 추진 일정

- 가. 「5세 누리과정」 최종 (안) 고시 : '11. 8월 말
- 나.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 '11. 9월 ~ 11월
- 다.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연수 : '11. 12월 ~ '12. 2월





## **발표. 「5세 누리과정」 제정[안]**

---

### **II.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구성**





## II.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구성

### 1.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개발방향 · 목적 · 목표

#### 가. 개발방향

- 가. 만 5세의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나.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다. 전인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라.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의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한다.
- 마.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바. 1일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목적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 목표

- 가. 기본운동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른다.
-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 2.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각 영역별 내용

### 가. 신체운동

#### 1) 내용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신체운동	신체 인식하기	감각 능력 기르기
		감각 기관 활용하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조절하기
		이동하며 운동하기
		제자리에서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바른 식생활 하기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질병 예방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 2) 세부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신체 인식하기	감각능력 기르기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감각기관 활용하기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조절하기	신체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운동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운동을 한다.
	이동하며 운동하기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 운동을 한다.
	제자리에서 운동하기	제자리에서 다양한 운동을 한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이를 깨끗이 닦는 습관을 갖는다.
		손과 몸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갖는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바른 식생활 하기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식사예절을 지킨다.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스스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
	질병 예방하기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미디어에는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이 있음을 안다.
	교통안전 규칙지키기	교통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다닌다.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차량 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한다.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에 참여한다.
		학대, 성폭력, 유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 나. 의사소통

### 1) 내용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의사소통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

### 2) 세부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바른 태도로 듣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말하기	날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 말한다.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말한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쓰기 도구 사용하기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 다. 사회관계

### 1) 내용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기
		나를 소중히 여기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과 협력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절 바르게 생활하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사회에 관심 갖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 2) 세부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기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나의 감정 조절하기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
		가족과 사이좋게 지낸다.
	가족과 협력하기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예절 바르게 생활하기	친구와 어른께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킨다.
		도움을 받거나 잘못했을 때 적절한 말과 태도로 표현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한다.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사회에 관심 갖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공공규칙을 지킨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공정성을 이해한다.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의 이름과 특징을 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기관의 역할을 알아본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 라. 예술경험

### 1) 내용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 탐색하기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극놀이로 표현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전통예술 감상하기

### 2) 세부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다양한 소리, 악기 등으로 강약, 속도, 리듬 등을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세기,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과 사물에서 색, 질감, 모양, 공간 등을 탐색한다.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한다.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극놀이로 표현하기	경험이나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음악, 움직임, 미술, 극놀이를 통합하여 표현한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표현과정을 즐긴다.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다른 문화의 예술작품에 관심을 가진다.
	전통예술 감상하기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 마. 자연탐구

### 1) 내용체계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과정 즐기기
		탐구기술 활용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기초적인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 2) 세부내용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한다.
	탐구과정 즐기기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비교하기, 예측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탐구기술 활용하기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예측하고 적용한다.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안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다양한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기초적인 측정하기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시간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임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 본다.
	규칙성 이해하기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과학적 탐구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자연현상 알아보기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편리한 물건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안다.





## 토론

---

김영옥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이인혜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신경은 한송이유치원 원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장미라 면일어린이집 학부모





## 「5세 누리과정」(안)에 대한 토론

김영옥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가치와 이상을 담는 그릇이다. 또한 차세대를 위한 교육과 삶의 은유이자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바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12월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을 발표하고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 5개 영역 중 하나가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운영이다.

근거법령, 정책대상 및 기관, 전달체계와 관리, 재정, 주요정책 및 담당부서, 전문연구인력과 정책지원기구에 있어서 오랜 이원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부터 공통과정(안)을 도출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 그리고 개발 TF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소소한 점을 포함하여 몇 가지 생각을 다음의 관점에서 논하기로 한다.

### 1. 영역의 명칭

영역명칭은 영역 내의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을 잘 드러냄과 동시에 그 영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치원교육과정의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과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는 모두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안 또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으나 신체건강(영역), 언어(영역), 사회(영역), 예술(영역), 탐구(영역)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5개 영역의 명칭이 내용범주를 포괄하는 용어인가? 목표적 용어인가? 내용적 용어인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고려된 것인가? 등을 생각해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운동 안에는 건강/안전영역의 내용이 포함되어 신체운동이란 용어가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체건강'영역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사회관계에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외에도 사회에 관심갖기가 있는데 지역사회, 우리나라 등의 내용을 사회관계로만 명명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또한 자연탐구에는 3개 내용범주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가 있는데 자연탐구라는 용어보다는 '탐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대표성이 있다

고 보여 진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간결하고 함축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 예술경험은 유아의 특성이나 본질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심미적 안목과 문화적 감수성이 내포된 매우 돋보이는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는 관계이고 예술은 경험이라고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장점은 있으나 대분류수준에서는 그러한 단어를 붙이기보다는 ‘사회’, ‘예술’ 등이 간결하고 포괄적이라 보여 진다. 따라서 5개영역의 명칭을 변경하여 소위 문패명을 통일해야할 것이다.

## 2.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양이 적절한가? 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현재의 (안)은 5개 영역, 20개 내용범주, 63개 내용, 147개 세부내용으로 그 양이 다소 많다고 보여 진다. 좀 더 내용의 안배와 세부내용과의 관계에서 적정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기본생활 및 건강 내용과의 통합으로 신체운동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양이 많다. 예를 들어, 2.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3.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를 통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용어를 고려하여 세부내용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신체운동 2.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 신체 인식과 조절을 하나로 합하고 기본운동하기를 따로 구분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신체인식과 조절하기/기본운동하기로 구분하면서 정리할 수도 있다. 기본 운동하기는 움직임의 요소를 인식하고 운동하기, 이동하며 운동하기, 제자리에서 운동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참고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자세 바르게 하기<바른 자세로 앉고 서기, 바른 자세로 걷기, 바른 자세로 공부하기’가 언급되어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태도에 대한 면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누리과정에서도 ‘바른 자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내용범주와 내용 및 내용과 세부내용과의 연계

내용범주와 내용, 내용과 세부내용과의 논리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지칭하는 개념의 수준이 다르며 개념의 위계도 정돈되기 어려워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중복개념이 생긴다. 당초에 유치원교육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은 각각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를 대상으로 일련의 연령적 맥락을 기초로 개발된 것이다. 또한 유아를 위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히 구별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하거나 중복개념, 이들의 위계와 분류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 신체운동 2-1. 신체조절하기

- 2-1-3.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운동한다는 2-2. 이동하며 운동하거나 2-3. 제자리에서 운동하기에서 모두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 신체운동 2-1-4.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운동을 한다.

- 조작운동하기 내용으로서 3-3.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와 중복된다.

#### ☐ 신체운동 3-3.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 2-2. 이동하며 운동하기, 2-3. 제자리에서 운동하기 다음에 제시되어야 한다. 운동의 범주상 이동운동하기, 비이동운동하기, 조작운동하기로 나누어지며 3-3.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는 조작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 신체운동 4-4. 질병 예방하기

- 4-4-1.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는 4.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모든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삭제 가능하다.

#### ☐ 신체운동 4-4-3.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 사회관계의 4-2-4.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한다가 중복되는 내용이다.

#### ☐ 신체운동 5-2. 교통안전 규칙지키기

- 5-2-2.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5-2-3. 차량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한다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한다'에 포함될 수 있다.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에는 차량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활동 방법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재강

조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분리하여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의사소통 1-2-1.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고 수정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1-2-2.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와 중복되므로 1-2.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1-2-1.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태도적인 측면으로 1-4. 바른 태도로 듣기의 하위내용이다.

□ 사회관계 1. 나를 알고 존중하기, 사회관계 2.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 나의 감정을 아는 것은 1.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포함된다. 범주상 ‘나’, ‘나’, ‘가족’, ‘다른 사람’, ‘사회’보다는 ‘나’, ‘가족’, ‘다른 사람’, ‘사회’로 진행되는 것이 위계상 정돈되어 보이며 분류 근거도 희박하므로 통합이 가능하다.

□ 사회관계 2.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 2-1-2.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는 ‘공감’이라는 단어의 무게감 때문에 2.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의 하위개념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 사회관계 4.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4-3.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에서 4-3-2.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은 위의 4-3-1.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한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예술경험 2 예술적 표현하기

- 2-1. 음악으로 표현하기에서 2-1-1.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2-1-4.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에서 리듬과 노래를 만들 때는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노래나 리듬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본다로 수정이 가능하다.

□ 자연탐구 1-2. 탐구과정 즐기기

- 1-2-1.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비교하기, 예측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를 위의 즐긴다는 세부내용에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4. 개념의 구체성 및 내용 진술의 통일성

각 세부내용에서 구체화 및 세분화의 정도가 다르면 어떤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반면 어떤 개념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로 인해 포괄적 또는 협소한 개념 내지는 모호하거나 세분화된 개념 간의 균형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 사회관계 1. 나를 알고 존중하기

- 1-1. 나를 알기에서 1-1-2.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므로 구체화하거나 범위를 축소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관계 5-1-4. 공정성을 이해한다, 5-1-5.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범위가 큰 경우이며 신체운동 4-1-1. 이를 깨끗이 닦는 습관을 갖는다, 예술경험 2-1-3.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자연탐구 2-1-3. 스무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는 매우 구체적인 예이다.

### ☐ 예술경험 2-3-3.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표현한다고 수정할 수 있다.

### ☐ 자연탐구 2-2.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 2-2-2. 다양한 기본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바로 아래에서는 ‘기본도형을 사용하여’라고 하여 ‘다양한’이라는 말이 빠져있다. 이처럼 ‘다양한’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다.

### ☐ 자연탐구 1-1-1. 궁금해 한다, 2-1-4. 경험을 해 본다, 2-2-1. 나타내 본다, 2-2-3. 구성해 본다, 의사소통 1-2-2.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 궁금해 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유아의 입장이며 경험해 본다, 나타내 본다는 이와 다른 진술 형태이다. 또한 자연탐구 3-2-1. 성장과정을 알아본다, 3-2-2.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도 서술이 다른 형태이다.

### ☐ 자연탐구 3. 과학적 탐구하기

- 3-1.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에서 내용은 3-1-2.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본다인데 ~의 변화 과정을 알아본다와 같은 진술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 5. 용어의 적절성 및 기타

용어는 상징성을 강조하는가? 다른 내용과의 조화인가?에 따라 기준이 다를 것이다. 좀 더 적합한 단어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조사 등의 문맥을 정비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바란다.

### ☐ 신체운동 1-1. 감각능력 기르기

- 1-1-1.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에서 ‘미세한’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감각적 차이를 민감하게 구별한다 / 감각기관 인식(탐색)하기: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이나 사물의 차이를 인식한다와 같은 의미인가?)

### ☐ 신체운동 4-1.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 4-1-2. 손과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스스로 손과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로 수정할 수 있다. 유아들이 ‘스스로’하는 것이 중요하고 습관은 갖는다보다는 기른다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

### ☐ 신체운동 5-3.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 5-3-2.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에 포함된다. 학대는 비상 시는 아니므로 ‘위험한 상황’이 더 적절할 것이다.

### ☐ 의사소통 2-2-2.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2-2-3. 이야기를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 이야기를에서 ‘를’ 삭제한다.

### ☐ 의사소통 2-1-2.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

- 다양한 ‘단어’보다는 다양한 ‘어휘’가 더 적절하다.
  - 단어 :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 형태소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되는 말들
  - 어휘 :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낱말의 수요나 전체

### ☐ 의사소통 2-2.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 2-2-1.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말한다를 ‘적절하게 말한다’로 2-2-2. 주제를 정하여를 ‘주제에 대하여’로 제안한다.

- 사회관계 1-1-2.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
  - 인정이라는 용어는 다른 서술의 맥락에 비하면 언어의 색감이 다르다.
- 자연탐구 2-3-1.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시간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시간 등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본다로 제안한다.
- 자연탐구 3-4-3. 편리한 물건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안다.
  -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안다는 ‘도구와 기계를 안전하게 다루고 사용한다’라는 형태의 서술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 신체운동 5.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 ‘환경오염’, ‘미디어의 바른 사용’, 사회관계 5-2.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에서 ‘경제기초개념’, ‘자원의 소중함과 재활용’을 고려하여 점검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자연탐구에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는 내용을 고려해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생명을 보호하기>동식물 사랑하기, 생명의 소중함 알기로 이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 신체운동 1. 신체인식하기의 1-1. 감각능력 기르기, 1-2. 감각기관 활용하기, 자연탐구 1.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의 1-1.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1-2. 탐구과정 즐기기-> 1-3. 탐구기술 활용하기의 내용, 서술, 순서의 일관성과 근거가 무엇인가? 제시 순서에 있어서 활용하여 능력이 길러지는 것인가? 능력을 길러 활용하는가? 또한 활용에서 즐기기인가? 즐기기에서 활용인가? 차기에 우리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세부내용의 제시 순서가 유아발달과 교수내용의 강조점에 근거한 유아의 경험 순인가? 개념 수준의 논리 순인가? 교수방법의 난이도 순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개념이나 요소의 방향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며 앞으로 이에 따른 교사교육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통합장학체제의 구축, OECD권고와 같은 만 3-4세와의 연계 및 무상교육,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등의 과제 앞에 산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 5세 공통과정(안)의 ‘산고’를 생각하면 ‘귀한 자식’이다. 어렵게 도출한 누리과정(안)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애정으로 잘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역사는 두 가지로 남는다고 한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며 또 하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이다. 누리과정은 만 5세 어린이들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를 지원하고 기존의 보육예산을 만 4세 이하 영유아보육서비스개선을 위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려는데 뜻이 있다. 누리과정(안)을 도출해내신 정부의 양부처 및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및 TF 위원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우선 5세 만이라도 유아교육·보육선진화를 실현하려는 '대의'를 향해 구성원 모두의 동참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만5세 공통과정(만5세 누리과정)안 토론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1. 시작하며

정부는 지난 5월 2일 “만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여 2012년부터 5세아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5세아 교육·보육관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른바 “만5세 공통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복지부와 교과부는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두 분야의 학자와 현장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여 TF팀이 합의한 만5세 공통과정안을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이를 뒷받침한 두 부처의 관계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의 노력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 보육계와 유아교육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합의한 만5세 공통과정안이므로 당연히 합의안 자체를 존중하면서 토론자의 입장에서 아쉽게 여겨지는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 이 공통과정을 잘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요건도 적지 않을 것이나 오늘 공청회는 TF팀이 마련한 만5세 공통과정안에 대한 공청회이기 때문에 본 토론자는 이 공통과정안의 내용을 우선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 2. 만5세 공통과정 마련의 의미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각각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이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해서는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유아의 가정밖에서의 보육·교육경험의 차이를 줄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종의 출발점의 평등을 초등학교 일년 전인 5세부터 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다.

또 공통과정 도입을 위해 보육계와 유치원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과 주

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란 점에서도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본 통합과정은 관련 당사자들(부처, 학계 및 현장)의 참여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유능한 국가인적자원의 미래에 대한 기성세대의 고민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도 그 어느 시기보다 클 것이다.

만5세 공통과정 도입과 더불어 하루 일정 시간의 보육·교육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모든 만5세아에게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육아지원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될 것을 기대한다.

### 3. 만5세 공통과정안의 구성과 내용

#### 가. 공통과정안의 영역 구성

공통과정은 큰 틀로 볼 때 기존 유치원교육과정의 5개 영역 틀을 유지하고 각 영역의 명칭은 표준보육과정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유치원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양쪽의 특징을 살린 셈이다. 사실 이런 형식적 합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두 집단은 그동안 각자의 발전 역사를 통해 자기 나름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 면에서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질적인 면을 들여다 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영역구성은 공통과정 계획안 발표에서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것이 ‘만5세아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기본적 능력’을 형성하는 공통과정이란 점에서 볼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기본생활 내용을 영역범주에서 오히려 제외하는 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린이집은 종일 보육의 특징과 0~5세 영유아가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본생활 영역을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현장에서도 제대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만5세아 공통과정 개발방향 설명 가.에서도 ‘~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역을 삭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본생활 영역이 없어지고 그 내용이 신체운동, 사회관계 영역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두 영역의 내용범주와 내용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공청회 후 영역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면 ‘기본생활’ 영역을 살려 국무총리께서도 직접 자세히 언급한 기본생활습관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렇게 되면 각 영역간 내용범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에서 균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나. 공통과정안 개발방향의 제시 순서와 내용

### □ 개발방향

가. 만 5세의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나.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전인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라.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한다.

마.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바. 1일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소소한 지적이지만 위 개발방향에서 가, 나, 다, 마는 공통과정의 목적이거나 내용과 관계 되며, 라.와 바는 공통과정의 실행방법론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개발방향의 제시 순서를 가. 나. 다. 마. 라. 바의 순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 가. 만 5세의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란 문장에서 질서, 배려, 협력 등은 이전에는 바른 인성을 수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 가. 만 5세의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낸다.

이 개발방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공통과정이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종일보육을 근간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 만5세의 보육과정 운영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공통과정 시간 이후의 시간을 종일제 보육으로서의 장점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보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는 정부가 모든 만5세에 대해 주 15-25시간 정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비용지원의 내역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유사성하면서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란 점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영역별 내용범주 및 하위 내용 구성

위에서도 지적한대로 표준보육과정은 종일보육의 특성과 영아기 보육과의 연계상 기본생활습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치원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었으나 다섯 영역으로 조

정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기본생활 영역이 나뉘어져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생활은 신체운동 영역으로, 바른 생활은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체운동 영역과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범주가 다른 영역에 비해 늘어나게 되었고 영역명칭에 대해 TF팀에서 상당시간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가령 신체운동 영역에 대해 보육계는 기본생활의 특징도 살리려는 고심에서 신체·기본생활로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건강이나 안전도 결국 신체(관리)와 연결된다는 점과 공동주거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유아의 운동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운동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들어 TF팀이 신체운동 영역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

다만 소소하게 신체운동의 하위내용 중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 ‘규칙적으로 실내외 신체활동을 한다’로, ‘손과 몸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갖는다’ -> ‘손과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한다.

또한 사회관계 영역에서 그 범주내용의 내용구성에서 간단한 수정을 제의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는 나->가족->다른 사람->사회에 관심갖기로 내용범주가 확장되며 각 내용범주별 해당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예절바르게 생활하기’는 오히려 ‘사회에 관심갖기’의 내용범주 중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의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어야 내용상의 위계가 자연스럽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란 내용은 ‘사회적 관심 갖기’의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내용의 위계를 가지면서도 사회관계의 기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만5세는 가족관계에서 나아가 친구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시기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를 하나의 범주로 둔다면 친구관계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그렇다고 내용범주를 늘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체운동과 사회관계 영역에 대해 주로 토론을 하고 보니 결국 이것은 기본생활 영역을 없애면서 비롯된 문제란 점에서 다시 한번 기본생활 영역을 살리는 문제를 이후 공통과정 확정단계에서 고려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이다.

## 4. 만5세아 공통과정 운영

앞으로 만5세 공통과정이 확정되면 이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통과정에 대한 해설서 작성이나 공통과정에 근거한 활동프로그램 개발, 공통과정에 대한 교사교육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는, 결과적으로 만5세에게 교

사주도적, 획일적인 보육·교육활동을 부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공통과정의 개발방향과 목적, 목표,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고 토론하는 교사교육과정을 알뜰하게 가짐으로써 교사 스스로 공통과정을 적절히 구현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평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하나의 표준화된 잣대로 공통과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유아의 자발성이나 창의성, 만5세에 맞는 교육철학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공통과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만5세 공통과정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는 많다. 가령 만5세 단독반이 아닌 3-5세, 또는 4-5세 통합반의 경우의 운영방법, 앞에서 지적한대로 3-5시간 이후의 운영방법, 정부지원 보육·교육비의 의미, 각 기관 간 운영환경의 차이 극복의 문제 등,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욱 신중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5. 마감하며

만5세 공통과정의 성공적인 실행은 유아의 행복하고 유능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현장 및 학계, 부모의 협력과 혁신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육과 유아교육의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역할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도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5세 공통과정이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정부가 부담하는 사실상의 5세아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다. 의무교육은 부모(보호자)가 만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5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가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만5세 의무교육은 보육·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가 예산 문제 등 이러한 의무교육을 실시할만한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동안 만5세 공통과정안 마련에 참여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적절하게 고려된 최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 5세 공통과정 토론문

이인혜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만5세 공통과정은 만5세아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으로서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관점과 저출산 문제해결, 일 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모든 어린이들이 배우고 알아야 할 내용을 국가수준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상을 재정립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이익을 최상으로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통과정 도입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선택할 때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내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요?”라고 한 질문의 의미가 어떤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하는가가 아니라 특별활동을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도 표준보육과정이 생기면서부터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공통과정의 개발은 또 다른 인식을 가져오리라 본다. 왜곡된 조기교육 및 양육관련 정보로 인해 지식습득 중심을 추구하는 것보다 아동중심의 발달에 적합한 실재를 먼저 고려할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즐거운 영유아기를 공통과정을 통해 공동의 지향점으로 삼으며 소모적인 갈등(명칭, 차별 지원등)보다 사회적인 책무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는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의 도입은 내용변화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의 변화, 형식의 질과 함께 제도변화를 전제하여야 한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각 개인시설로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로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통과정의 성공여부는 각내용에 집중하는 부처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선 어린이집 입장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 점과 누리과정의 내용적인 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기본생활

- 오늘 발표하는 누리과정은 지난 5월 2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보도 자료의 공통과정 내용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 지난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공통과정은 만5세 유아기에 필요하거나 강조해야 할 기본능력과 연계하여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창의성, 인성교육 내용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을 반영하려는 발표내용은 이를 잘 받침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변화로서 핵심역량 강화<sup>1)</sup>와 비견할 수 있다. 그러기에 표준과정의 6개영역 중 가장 이 가치를 잘 나타내는 기본생활이 누락된 것은 누리과정 전반에 녹여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아교육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보육과정 제정 시 참여한 유아 교육학자 및 각 학회단체의 공통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현장에서 기본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본 미국의 사례는 기본생활습관과 교육이 시민교육의 시작이어야 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로 인해 6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kids-zone)' 움직임이 식당 호텔 극장 항공사 1등석 등 세계 곳곳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2011,7,27, 헤럴드경제 등 인터넷기사)

존중하고 보호받는 존재에서 군림하는 아이들에 대한 따가운 지적은 역시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때때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과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교육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교육기관에서의 기본생활 습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한 OECD 가입국의 유아교육의 최근동향을 보면 핵심역량이 어떠한 국가적 가치를 반영하더라도 차츰 국가별로 영아보육과정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영아기에 절대적으로 분리 강조할 수밖에 없는 기본생활 영역을 연계해야 한다고 본다면 지금 만5세의 공통과정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몇 년 후를 내다보고 기본생활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금 거시적으로 재 논의하였으면 한다. 공통과정의 내용은 국가의 아젠다를 표방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기본생활에 대한 고려는 다시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

1)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2002)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이나 직무를 위한 개별 역량요소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하는 것(Rychen,2003; ,소경희, 2006a)

## 2. 만5세 공통과정을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문제

### ○ 종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지원

발표에 따르면 만5세 공통과정은 일 3~5시간이라고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보육의 질이 상향 평준화, 초등학교와의 연계강화,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종일제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종일반 교육비와 교사를 지원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종일 있는 유아의 종일보육과 수업준비로 인한 인력과 시간이 현재도 절대 부족하다. 공통과정의 목표를 잘 달성하려면 다른 어떤 것 보다 종일보육에 해당하는 오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별도의 인력충원과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부모님들은 우리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돌보아주기를 희망하지만 지쳐있는 교사의 모습에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며 달리 대안이 없는 경우 특별활동이나 외부 학원으로의 의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지속적인 교사 재교육의 문제

어린이집은 일찍이 교사 대 아동의 수<sup>2)</sup>를 엄격하게 적용한 이후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만5세 공통과정을 실천하기에는 좋은 구조라 볼 수 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국의 17만 보육교사 현장의 혼란이 덜 할 수 있어서 무척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공통과정의 교육을 위해서는 조속한 교사교육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대체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 혼합연령에 대한 고려

현장에는 지역에 따라(농어촌 등),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철학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합연령이 존재하고 있다. 이때 교실 내 공존하는 교육과정과 용어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야할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 교사들 간의 갈등

어린이집에서는 만5세 과정에 대한 준비로 유아반을 담임하기에 적합한 교사를

2) 0세는 1:3, 1세는 1:5, 2세는 1:7, 3세는 1:15, 4,5세는 1:20



배정하고자 할 것이다. 경력이 오래된 영아 교사들과 만5세를 맡는 담임의 중간 경력의 교사인 경우 담임수당이 달라질 때 교사들 간의 위계와 갈등이 예상되는데 교사처우에 대한 계획이 이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준비를 하였으면 한다.

#### ○ 평가의 문제

공통과정이 잘 실행되었는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영유아에게 적절한지,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과정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는 기관은 분명히 각각 독립적인 필요가 있다. 이미 보육시설은 두 차례의 평가인증과 서울형 인증, 공공형과 같은 평가로 지쳐있어서 각 시설 내에서 실행의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혼란이 덜 발생할 수 있다.

### 3. 결론

다행히 보육현장에서는 표준보육과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공통과정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각각의 입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분명한 것은 공통과정을 통하여 마음속에 해결하고 싶었던 불필요한 갈등을 통합하여 우리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즐거운 미래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의 성숙한 협력과 실천의지로 인하여 공통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5세 누리과정」(안)에 대한 유치원 현장 토론

신경은 한송이유치원 원장

「5세 누리과정」은 3-5시간의 기본과정을 위한 만 5세를 위한 독립된 과정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렇다면 만 5세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취학전 아동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세 누리과정」 발표 당시 강조되었던 기본생활습관, 배려, 창의, 인성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든 영역에서 강조할 수 있도록 영역 구성이 이루어짐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며, 현장에서 교육활동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역의 명칭이 하위내용을 잘 드러내지 못함과 일부 내용범주가 너무 세분화되고 세부내용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1. 영역 명칭이 적절하지 않음.

- 영역 명칭이 영역내의 하위 내용을 잘 드러내지 못함.
- 신체 운동 영역의 하위 내용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건강, 안전
- 자연 탐구영역의 명칭이 적절하지 않음.→수·과학 탐구

### 2. 세부 내용의 양이 너무 많음.

- 만 5세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많음.
- 3-5시간의 기본과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줄여야 함.
- 공통과정으로 제시된 세부내용이 147개인데 이는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의 2수준과 공통수준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임.

### 3. 세부 내용들이 중복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은 조정되어야 함.

- 신체 운동영역에서
  - ※ 감각능력 기르기의 세부내용인 미세한 감각의 차이를 구별한다/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차이를 인식한다.

- 사회관계영역에서

- ※ 다른 사람과 협동하며 놀이한다/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한다.
- ※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의 세부 내용 중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 위의 내용은 차별화하여 인식하기 어려움.

#### 4. 내용과 세부 내용이 맞지 않음.

-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에서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
- ※ 운동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보다는 인정한다가 더 타당하다고 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오히려 사회관계의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나를 알기/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와 동일하다고 봄.

#### 5. 만5세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세부내용이 있음.

- 의사소통 영역의 읽기의 내용범주에서 읽기에 흥미가지기/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는 만3~4세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임.
- 신체운동영역의 건강하게 생활하기에서
  - ※ 건강한 일상생활하기의 바른식생활하기 중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의 세부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명료하지가 않음.
  - ※ 건강한 일상생활하기의 세부 내용 중 '바른 배변 습관을 가진다'는 발달과업상 만 5세 이전에 습득되는 것으로 5세 발달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음.
- 신체운동영역의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
  - ※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의 세부 내용 중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에 참여한다'는 만 5세아의 성취 목표라기 보다는 기관이나 교사의 안전관리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 6. 신체 운동영역의 내용범주에 체계성이 결여됨.

- 신체운동 영역의 내용범주에서 신체 인식하기/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의 3개 영역의 내용범주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 즉 신체 조절하거나 기본운동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하게 되므로 3가지 범주를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7. 사회관계의 내용 범주 체계가 일관성이 없음.

- ‘나 →가족 →다른 사람→ 사회’로 체계성있고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즉, ‘나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기’는 ‘나’라는 내용범주에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임. 꼭 별도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감.

## 8. 용어의 수정이 필요함.

-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세부내용에서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교통수단으로 수정되어야 함.

※ 교통기관은 선박, 비행기 등까지 포함하는 운송수단을 포괄하는 용어이므로, 사람들이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려면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로 수정해야 함.

## 9. 만5세 과정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내용

- 개발 방향의 ‘나.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에 근거하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자연과 환경지키기에 대한 내용이 자연탐구영역의 내용범주와 세부내용 속에 포함되어져야 함.

## 「5세 누리과정」 (안)에 대한 학부모 토론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그 동안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고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사이의 선택에서 시작됐다. 두 곳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차이도 모른 채 거리나 평판, 원비 등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으니 이제라도 바른 기준과 정보를 제공해 만족 높은 선택이 가능하게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 것 같다.

1997년부터 무려 14년 이상을 5세 이하 아동교육을 통합하지 못하고 교육과 보육으로 나누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따로 관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명백히 부처 간 이해와 알력의 결과라는 것에 안타까움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는 이 자리에선 참고자 한다.

어쨌든 2012년부터 만5세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고 그 동안 제 각각이던 교육과정을 통일해 모든 만 5세아가 균등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통과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바란다.

5세 누리과정의 영역표를 보면서 목적이 ‘기본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 하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이들의 부담과 교사의 노고가 느껴진다. 이런 교육과정 개발이야말로 균형 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자연스럽게 교육 내용에 녹이는 과정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좋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 1. 영역 명칭

유치원의 5개 영역(건강, 언어, 사회, 표현, 탐구)과 보육의 6개 영역 중 5개(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매치하고 보육 중 남은 기본생활을 신체운동과 사회관계에 분산 배치 한 형태가 최종합의 안이다.

부처 간의 이해때문인지 보육과정의 명칭을 사용했는데 더 좋은 이름으로 만들 생각은 없는지.

가. 신체운동은 건강, 안전을 포괄하기엔 역부족인 명칭같다. 그렇다고 신체운동, 건강, 안전은 너무 복잡해 ‘신체건강’이 기본 생활도 포함하고 안전까지 포함하는 적당한 이름이라는 생각이다.

나. 자연탐구는 탐구생활이라는 수학과목과 연계해 나온 것 같은데 유아과정엔 너무 거창해 부담스럽다. 자연탐구보다는 ‘자연생활’이 숫자, 탐구태도, 생명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좋을 것 같다.

## 2. 영역 내용

5개 영역 표에서 항목간의 양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특히 신체운동과 사회관계 영역은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다보니 세부내용에 중복이 많아 통합했으면 좋겠다. 교육 목표만 확실하면 과정에 녹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니 교사에게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고 학부모가 이해하기도 지나치게 복잡하다.

가. 신체운동 중

- 신체조절과 기본운동, 신체활동에서 축약가능
- 건강생활하기(몸 깨끗이, 바른 식생활)

나. 특히 사회 관계영역은 기본생활에 속하는 부분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 가족 소중히 여기기(화목과 협력)와 더불어 생활하기(공동체 화목)

## 3. 마무리

5세 누리과정안의 내용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토론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반영되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5세 공통과정을 보며 내용 마련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시행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을 재배치한 수준이니 교육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사에게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이 획일화 되지 않았으면 하고 취학 전 유아기 마무리를 공부부담보다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신체경험, 체험등을 위한 시설과 여건 마련,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학부모의 관심사다. 꾸준한 학부모 홍보와 교사연수를 당부한다.

학부모들은 지금의 취학 전 유치원, 보육 교육에 비교적 만족한다.

그것은 선택이 가능한 때문이고 공립과 사립이라는 경쟁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든 보육이든 학부모는 좋은 교육을 찾아 선택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의 소홀과 때 늦음을 반성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재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 보장과 적정 수준의 시설을 담보하는 투자가 있을 때 저출산 문제도 아울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만 5세뿐 아니라 만 3세, 4세도 공통과정이 마련되어 연령에 맞는 표준교육을 모든 유아가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 만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에 대한 바람과 의견

장미라 면일어린이집 학부모

‘만 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이루어짐에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며 공보육의 수준 높은 질을 기대한다.

보육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기쁘고 어떤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든 같은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나는 현재 만 4세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내년이면 만 5세가 되어 ‘만 5세 공통과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어떤 커리큘럼으로 생활하고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특기 위주의 프로그램을 그 기관의 대표적인 커리큘럼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유아의 커리큘럼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게 했다. 하지만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르침에도 질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단순히 차이가 났다는 것을 느낌으로 안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로 연계 되었을 때 언어 구사능력, 창의력, 계산력, 체육활동, 미술활동, 음악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 아이의 교우관계 학습에 쏟는 열의, 그리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이 달라졌다.

만 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이 국가수준의 내용으로 만 5세에게 꼭 필요한 내용과 초등학교와 연계된 내용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할 것 없이 제시된다고 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어린이는 누구나 똑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공통 과정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주변의 학부모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만5세가 되어 학교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교과부 소속인 유치원 으로 옮겨야하나 약간의 고민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만 5세 공통과정이 생겨서 유치원 어린이집 할 것 없이 어느 기관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친숙한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보내도 된다고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아이는 0세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맞벌이 하면서 0세를 보내야 할 상황이라 집 주변에 가까운 곳을 선정하여 우연히 들어온 곳이지만 일하는 동안 엄마가 안심하고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부분(종일제)과

저렴한 보육비용에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직업을 가진 엄마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발달 연령을 고려한 교사 대 아동비율(0세 1:3, 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5세는 1:20)과 건강, 영양, 안전, 가족 협력, 지역사회, 그리고 보육 환경 및 보육과정과 상호작용 등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에 더 안심이 되었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느꼈던 많은 고마움들은 몇 줄의 글로 적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년 동안 어떤 교사든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고, 그 연령에 맞는 놀이를 제공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중 기본생활에서 우리 아이는 어른들을 능가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널 때 반드시 서 있고 처음부터 초록불이 들어와야만 건너간다. 급한 마음에 건너려하면 바로 지적을 하는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는 바른 생활 어른이 되었다.

며칠 전 나들이 가느라 버스를 타야하는데 가깝게 신호등이 보였다. 조금 멀리서 우리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오고 있었다. 아이와 타협해 보고 싶어서(신호등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초록불이 켜졌다),

“조금 전에 켜졌는데 가면 안 될까? 저 버스 놓치면 많이 기다려야 할 텐데…….” 하고 말했다. 그 순간 아이의 난처한 얼굴이 눈에 들어와서 포기를 하고 서있는데 버스가 가 버렸다. 다음 신호에 건너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버스가 가버렸네. 많이 기다려야겠다. 더운데…….”

“엄마! 빨리 가는 것 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이의 말에 정말 부끄러운 어른이 된 엄마. 기본적인 생활과 기본적인 인성에서 아이는 정말 잘 자라 주었다. 어린이집에서 배우게 되는 기본생활은 가깝게는 우리 아이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또한 커서는 사회생활에 가장 필요한 예절, 질서, 안전, 건강에 대한 측면으로 발전됨을 큰 아이들을 통해서 보았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바빠서 못해주었던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꾸준히 다루어주셔서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아이가 하나, 둘 씩 알아가며 조금씩 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좋은 어린이집에 지내면서 만 5세 공통과정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 아이를 비롯한 2006년생의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 아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단,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기본 생활 측면의 요소가 ‘만 5세 공통과정’에서 축소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첫 발을 디딘 만큼 여러 선생님들이 계속 교육의 질을 확장, 보완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본다.



「5세 누리과정」 제정<sup>(안)</sup>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지의 해당 난에 기재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

---

보건복지부 담당자

육아정책연구소 담당자